

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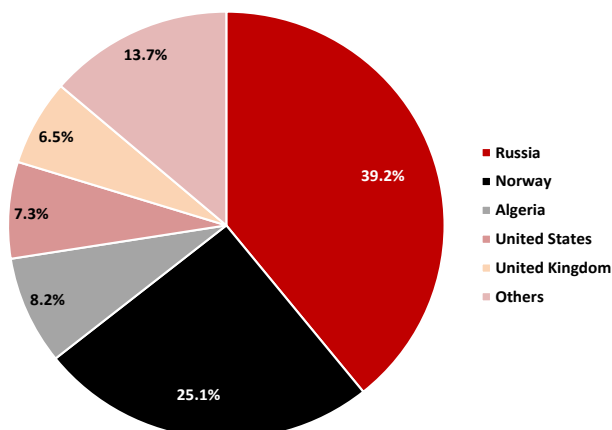
그린솔루션/항공우주/스물캡: 나승두, 3773-8891



수소 인프라 확대에 진심인 유럽

- EU 집행위원회,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 핵심으로 하는 IPCEI Hy2 Use 프로젝트 52억 유로 투입 승인
- IPCEI(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), 유럽 공동이익 프로젝트, 배터리 등 주요 회원국 공동 투자
- 지난 7월, 15개 회원국 참여한 54억 유로 규모 IPCEI Hy2 Tech 프로젝트 승인 이후 두 번째 수소 투자 계획 발표
- Hy2 Tech, 수소 생산 및 저장/운송, 연료전지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부분 다뤘다면
Hy2 Use는 수소 관련 인프라 및 수소 사용/응용 분야에 보다 집중
-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스페인, 스웨덴 등 13개 회원국 참여
- 29개 기업 참여하는 35개 프로젝트에 대한 마중물, 약 70억 유로의 민간 자본 투자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
- 그린수소 생산 위한 대규모 전해조 설치 및 운송 인프라 구축, 여타 산업(철강/시멘트 등) 공정 탈탄소화 등에 집중
- 러시아에 이어 유럽 지역내 천연가스 공급 2위 국가인 노르웨이, IPCEI Hy2 Use 프로젝트 2개 참여, 脫러시아 가속화
- 미국, IRA 내 단계별 보조금 지급으로 그린수소 생산 단가 낮추기 돌입, 유럽, 수소 인프라 공격적 확장 및 활용 추진
- **우리나라 청정수소 기준 정립 및 늦어질수록 글로벌 수소에너지 경쟁력 상실 위기감 가져야 할 때**

유럽 천연가스 수입지역별 비중(2021년 기준)



자료: Eurostat DataBase, SK증권

유럽이 목표하는 5대 수소 공급 인프라(Corridor)

- A: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
- B: 남서유럽
- C: 북해
- D: 북유럽 및 발트해
- E: 동유럽 및 동남유럽



자료: European Hydrogen Backbone, SK증권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나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